

국민 52% 디지털TV 구입희망, 40인치 벽걸이형 선호

디지털 TV 전송방식이 미국식으로 결정되고 정부 및 산업계에서 디지털 TV 보급에 적극적인 가운데, 국민 52%가 향후에 디지털 TV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디지털 TV가 보편화 되면 35%의 국민들은 삶의 질이 현재보다 더 윤택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및 5대광역시에 거주하는 만20~49세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 600명을 대상으로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 8월11일에서 8월13일까지 3일간 설문 조사(오차범위 ±4.0%)를 벌인 결과 15.4%가 디지털 TV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디지털 TV 미보유층의 51.7%가 향후에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입의향 디지털 TV 형태는 LCD 디지털 TV가 30.9%, PDP 디지털 TV가 27.8%, 프로젝션 디지털 TV가 6.9%, 브라운관 디지털 TV가 10.8%, 미결정이 23.6%로 나타나 벽걸이형 디지털 TV에 대한 구입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의향 디지털 TV 크기는 51.7%가 40인치 이상의 대형화면을 구입하고자 하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PDP 구입의향자는 62.5%, LCD 구입의향자는 57.5%, 프로젝션 구입의향자는 55.6%, 브라운관 구입의향자는 21.4%가 40인치 이상의 디지털 TV를 구입하고자 한다.

구입의향 가격은 평균 220만원 정도이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PDP는 약 276만원, LCD는 약 263만원, 프로젝션은 약 160만원, 브라운관은 약 92만원 정도로 디지털 TV를 구입하고자 하고 구입의향 디지털 TV에 대한 셋톱박스 형태는 74.5%가 셋톱박스가 TV에 내장된 일체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TV 구입 시기는 향후 3개월 이내가 1.2%, 6개월 이내가 5.4%, 1년 이내가 12.0%, 1년 이후가 81.1%로 나타났고, 디지털 TV 미구입 이유는 '아날로그 TV와 교체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가장 크며, 다음은 '디지털 TV 가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나타났다.

현재 디지털 방송이 송출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국민이 77.7%이며, 올림픽 방송 중 일부가 디지털 방송으로 송출할 것을 아는 국민들도 59.5%로 나타났고 국민들은 고화질, 고음질 등의 기본적인 디지털 TV 기능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으나, 정보검색, 금융거래 등의 양방향 서비스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TV가 보편화 되면, 국민들의 18%는 현재보다 TV 시청시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상으로 디지털 TV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크기가 40인치 전후의, 형태는 PDP, LCD 같은 벽걸이형 디지털 TV를 구입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도가 디지털 TV 보급 확대에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TV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아날로그 TV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TV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